“올림픽 금메달 비법 배우러 왔습니다”

광주에서 동계전지훈련 중인 일본 양궁대표팀(네셔널팀)이 1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훈련을 마친 후 남구청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일본 양궁 국가대표 1, 2진 80명 광주서 동계전지훈련

기보배, 최미선, 안산, 이승윤 등 올림픽 스타들과 합동 훈련
2025 세계양궁선수권 예행 연습…자신감 고취·동기 부여
최고의 시설·최고의 선수 ‘양궁 메카’ 실감 “많은 걸 배울것”

“올림픽 금메달 비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지난 8일 광주를 찾은 일본 양궁 국가대표 1, 2진 80여명이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한다.

1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만난 카와이 도쿠유키 일본대표팀 감독은 “2019년 주니어팀 감독으로 광주를 찾아 기보배, 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포진한 광주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어 코로나19 이후 처음 소집한 1, 2군 첫 합동훈련지로 일본이 아닌 광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카와이 감독은 “그때 합동훈련은 일본 선수들에게 훌륭한 자극제가 됐고 이후 경기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동계훈련에는 2020 도쿄올림픽 남자양궁 동메달리스트 후루카와 다카하루를 비롯해,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합작한 무토 히로키, 가와타 유키 등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14 파리올림픽 메달이 기대되는 최정예 선수들이 전원 동행했다.

선수단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내셔널팀(국가대표 1진·U-21대표팀·U-18대표팀)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광주시청, 남구청, 조선대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주니어팀(상비군)은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광주은행, 광주여대, 광주체고 선수들과 훈련을 나눠 진행한다.

카와이 감독은 “매년 광주 전지훈련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웠다. 올해도 하계 전지훈련을 계획했으나, 상황이 어려워 동계훈련으로 급선회했다. 해를 넘기기 아쉬울 정도로 광주 전지훈련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보배, 이승윤,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땀 흘린 훈련장에서 실제 그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큰 영광”이라며 “그들의 자세 하나하나, 훈련 방식,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워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일본선수단은 오전에는 광주선수단과 친선경기를, 오후에는 자체 경기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카와이 감독은 “오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과 실전을 방불하는 친선경기는 일본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질 만큼 강한 승부욕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오후 자체 경기에서 향상된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월드컵, 아시안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최고의 인프라와 기보배, 안산, 이승윤 등 양궁 스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이 활기를 띠면서 광주는 국내외 전지훈련 메카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

광주는 양궁을 기반으로 국제스포츠 도시 브랜드 제고에도 탄력을 받아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내팀들은 물론, 프랑스, 일본, 중국 등 해외 선수단의 단골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자 지난 9월 이기식 총감독이 이끈 미국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 스타트를 끊었다.

카와이 감독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들은 일본 선수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는 물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주니어 선수들은 그들을 보고 느끼며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이곳을 미리 방문한 자체만으로도 선수들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경기장 시설 하나하나 풍경 하나하나, 바람의 느낌 등 그 모든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본양궁 주역들에게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많은 국제양궁장이 있지만 우리가 광주를 찾는 이유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산실’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느껴보고, 분위기를 배워가기 위함”이라며 “광주에 올 때마다 광주만의 정감을 느낀다. 따뜻한 환대로 선수단을 맞아 준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150㎞’…아도니스 메디나 영입

‘파이어볼러 원투펀치’…외국인 선수 구성 완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또 한 명의 우완투수를 영입하며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KIA는 11일 우완 외국인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26)와 계약금 3만6천 달러, 연봉 3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63만6천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아도니스 메디나는 우완 투수로 신장 185㎝, 체중 84㎏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활동한 투수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19경기(선발 2경기)에 출장 1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5.35를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135경기(선발 106경기)에 나서 36승 33패 2세이브 2홀드 평균자책점 3.83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뉴욕 메츠에서 14경기에 등판,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6.08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트리플A)에서는 18경기(선발 2경기)에 나서 31이닝을 던지며 1승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65를 기록했다.

KIA 구단은 “메디나는 시속 150㎞를 넘는 빠른 공과 결정구로 던지는 싱커가 위력적인 투수”라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섞어 던지며 특히 빠른 구속에도 제구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새 외국인 투수 아도니스 메디나가 계약을 마친 뒤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올해 활약한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재계약하고 최근 우완 파이어볼러 숀 앤더슨과 계약한 KIA는 좌완 파노니 대신 우완 메디나를 영입하며 파이어볼러 원투펀치를 구축했다.

이로써 KIA 선발진은 토종 좌완 양현종, 이의리에 외국인 우완 투수들의 조합으로 내년 시즌 시너지 효과를 기대케 했다.

/박희중기자

KIA 나성범 ‘황금장갑’ 품다

7년 만에 골든글러브 수상…‘타격 5관왕’ 이정후 최다득표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됐다.

나성범은 지난 9일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정후(키움), 호세 피렐라(삼성)와 함께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6년 총액 150억 원의 FA 계약으로 KIA로 이적한 나성범은 144경기 전 경기에 출장하며 180안타(21홈런), 97타점, 92득점, 타율 0.320, 장타율 0.508. 출루율 0.402를 기록하며 팀 타선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나성범이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것은 NC 소속이던 2014년, 2015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나성범 덕분에 KIA는 2020년 최형우(지명타자) 이후 2년 만에 수상자를 배출했다.

KIA는 올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전 포지션에 후보를 배출했으나 수상자는 나성범이 유일했다.

나성범은 “내년 목표는 팀이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올해는 5위로 마쳤지만, 내년엔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노력해 가을야구를 더 오래 즐기고 싶다. 정상에서 기다리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내년엔 동료들과 함께 이 자리(골든글러브 시상식)를 빛내고 싶다.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서 이 좋은 상을 동료들 모두와 함께 받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타격 5관왕’ 이정후는 304표(득표율 97.1%)를 받아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은퇴를 선언한 이대호는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받으며 역대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 기록을 세웠다.

/박희중기자

지난 9일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외야수 부문 수상을 한 나성범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돌풍’ 모로코 對 ‘2회 연속 우승 도전’ 프랑스

유시프 누사이리 /로이터=연합뉴스

올리비에 지루 / EPA=연합뉴스

‘남미 자존심’ 아르헨티나 對 ‘끈질긴 뒷심’ 크로아티아

리오넬 메시 /로이터=연합뉴스

도미니크 리바코비치 /로이터=연합뉴스

4强이 가려졌다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아프리카의 돌풍’을 일으키며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안착했다.

모로코는 11일 카타르 도하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 유시프 누사이리(세비야)의 결승골에 힘입어 포르투갈에 1-0으로 이겼다.

1970년 멕시코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6번째 월드컵에 나선 모로코가 4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아프리카 팀이 4강에 진출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번 대회 전까지 8강 무대를 밟은 아프리카 국가도 1990년 카메룬, 2002년 세네갈, 2010년 가나가 전부였다.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 벨기에를 꺾고 16강에선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누른 데 이어 포르투갈까지 유럽 강호들을 차례로 넘어서며 새 역사를 썼다.

프랑스도 난적 잉글랜드를 따돌리고 준결승에 진출, 2회 연속 우승을 향해 또 한 발을 전진했다.

프랑스는 11일 열린 8강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인 프랑스는 2회 연속이자 통산 7번째 월드컵 4강에 진입했다. 월드컵에서 직전 대회 우승팀이 4강에 진출한 건 1998년의 브라질 이후 24년 만이다.

1998년 자국 대회와 2018년에 이어 통산 3번째 세계 정상을 노리는 프랑스는 모로코와 15일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결승행을 다툰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끈질긴 뒷심은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도 통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10일 열린 브라질과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1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겨 4강에 올랐다.

크로아티아는 최근 월드컵에서 치른 다섯번의 연장 승부에서 한번도 패하지 않으며 ‘연장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

아르헨티나도 8강전에서 펼쳐진 네덜란드와 8년 만의 맞대결에서 승부차기 끝에 웃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8년 만에 4강에 진출했다.

‘마지막 월드컵’에 나선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는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생애 첫 우승의 꿈까지 성큼 다가섰다.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는 14일 오전 4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결승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연합뉴스

박지영, KLPGA 개막전 우승

최종일 대회 날씨 때문에 취소

박지영(26)이 KLPGA 투어 2023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박지영은 11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 경기가 현지 낙뢰 때문에 취소되면서 2라운드까지 성적으로 정상에 올랐다.

전날 2라운드까지 박지영은 11언더파 133타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대회 우승 상금은 19만8천 싱가포르 달러(약 1억9천만원)다.

이날 경기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50분부터 싱가포르 정부 지침에 따라 낙뢰 위험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됐고, 정오까지 경기를 속개하지 못했다.

경기위원회는 결국 3라운드 경기를 취소하고, 2라운드까지 36홀 성적을 기준으로 이번 대회를 끝내기로 했다.

2023시즌 개막전 우승의 영예를 안은 박지영은 올해 4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이후 8개월 만에 투어 5승째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KLPGA 제공〉

CMYK